

01. ② 02. ④ 03. ① 04. ② 05. ①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⑤  
11. ② 12. ③ 13. ⑤ 14. ① 15. ③ 16. ④ 17. ③ 18. ③ 19. ⑤ 20. ①  
21. ④ 22. ① 23. ④ 24. ④ 25. ③ 26. ② 27. ③ 28. ⑤ 29. ② 30. ②

[1~5] 발음 및 어휘

1. 철자 'g'의 발음

L'étranger [lɛtrɑ̃ʒɛ] 이방인

- ① frigo [frigo] 냉장고    ② jeudi [ʒœdi] 목요일    ③ grippe [gʁip] 감기  
④ musée [myzɛ] 박물관    ⑤ campagne [kɑ̃paɲ] 시골

정답해설: 철자 'g'는 모음 'e'와 'i'앞에서 [ʒ]로 발음되므로 'L'étranger'의 밑줄 친 부분 'g'는 [ʒ]로 발음된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②번이다.  
정답 ②

2. 철자가 옳은 것 찾기

- |   |                  |
|---|------------------|
| (a) un <u>craion</u> de couleur         | 색연필              |
| (b) une chanson d' <u>automne</u>       | 가을 노래            |
| (c) le numéro cent <u>vinght</u> -neuf  | 129번             |
| (d) la grande <u>sœur</u> de ma tante   | 나의 숙모의 언니        |
| (e) un <u>drapau</u> bleu, blanc, rouge |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국기 |

정답해설: 밑줄 친 낱말의 철자를 바르게 고치면 각각 다음과 같다.

- ① crayon    ② automne    ③ vingt    ⑤ drapeau

따라서 낱말의 철자가 옳은 것은 ④번이다.

정답 ④

[3~5] 어휘

3. 어휘-동사

A : 너 에펠탑(tour Eiffel)이 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  
B : 물론이지! 그 이름은 기술자인 귀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에서 유래하지.

- ① 덕택이다, 유래하다    ② 주다    ③ 빌려주다    ④ 남겨두다    ⑤ 충고하다

정답해설: 문맥상 B의 빈칸에는 기원이나 유래를 의미하는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 ①의 동사 'devoir'는 '~ qc à qc'의 형태로 '~이 ...에게(서) 유래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4. 어휘-형용사

- 한 달 전부터 나는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다.
- 새로운 가게가 도심 한 가운데 문을 열었다.

- ① 한가한    ② 가득찬/한복판에    ③ 오랜된    ④ 빠른    ⑤ 나쁜

정답해설: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명사 'temps'과 결합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중심부를 의미하는 명사 'milieu'와 결합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 문장의 의미상 답지에 있는 형용사들 중에서 'plein'은 'à plein temps'의 형태로 '상근직으로', '풀타임으로'의 뜻이 되고, 'en plein milieu de la ville'의 형태로 '도심의 한복판에'의 뜻이 된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는 답지 ②번의 plein이다.  
정답 ②

5. 어휘-명사

A: 나는 사무실 아주 가까이 살고 있어. 그것은 우리 집에서 (a)아주 가까운 거리야.  
B: 시간이 얼마나 걸려?  
A: 대략 (b)걸어서 5분 정도.

- |         |      |      |          |
|---------|------|------|----------|
| (a)     | (b)  | (a)  | (b)      |
| ① 걸음/보폭 | 발(足) | ② 미터 | 일직선의, 직선 |
| ③ 선, 라인 | 왼쪽   | ④ 순간 | 출발       |
| ⑤ 초(秒)  | 필요   |      |          |

정답해설: 대화 맥락상 밑줄 친 빈칸 (a)를 포함하고 있는 A의 두 번째 문장에는 전치사 'à+시간/거리를 나타내는 명사'의 형태로 '나의 집으로부터'(de chez moi) 일정 거리나 시간이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밑줄 친 빈칸 (b)를 포함하고 있는 A의 두 번째 문장에는 맥락상 전치사 'à'와 결합하여 사무실까지 가는 방법을 표현하는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 ①의 (a) 'pas'는 명사로 '걸음, 보폭'을 의미하는데, 흔히 'à deux pas (d'ici)'의 형태로 (여기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표현한다. 또한 (b) 'pied'는 '발'을 의미하는 명사로 'à pied'의 형태로 '걸어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답은 'pas'와 'pied'로 구성된 ①번이다.  
정답 ①

[6~21]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버스에서 너의 우산을 잃어버렸어. 미안해.  
B: 괜찮아. 집에 다른 것이 있어.

- ① 나는 길을 잃었어      ② 그게 아니야      ③ 나는 선약이 있어  
④ 용서해줘      ⑤ 괜찮아

정답해설: A가 B에게 사과를 하자 B가 집에 다른 우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괜찮다고 말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7.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피곤해. 자고 싶어.  
B: 잘자! 좋은 꿈 꿬!  
A: 너도, 잘자!

- ① 기꺼이      ② 나는 동의해      ③ 아무것도 안 보여  
④ 좋은 꿈 꿬      ⑤ 알 것 같은데

정답해설: 대화 내용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자기 전에 건네는 인사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8. 글의 내용 이해하기

4월 15일에 태어난 귀여운 강아지들이 가족을 찾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7 71 37 05 XX로 전화해 주세요.

정답해설: 글은 강아지들에게 가족을 찾아 주려는 광고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③번이다.      정답 ③

9. 대화 순서 배열하기

A: 안녕하세요! c.무엇을 드릴까요?  
B : 치킨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A: 예. 또 b.다른 것은요?  
B: 과일샐러드 하나 주세요.  
A: 여기 있습니다. a.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세요?  
B: 네, 감사합니다.

<보 기>

- a.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세요      b. 다른 것은요      c.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해설: 대화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c-b-a 배열이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0. 글의 내용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고등학교에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신 Yves Martin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Lyon 출신이에요. 그는 Montaigne 중학교와 Ronsard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에게 환영의 인사를 합시다.

정답해설: 글의 내용은 Yves Martin씨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의 직업, 출신지 및 경력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취미는 알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다음 휴가에 무엇을 할 생각이니?  
B : 친구들과 모로코에 갈 거야. 너는?  
A : 나는 한국어를 배울 거야.

- ① 너는 어디 출신이니      ② 너는 무엇을 할 생각이니      ③ 그것은 무엇에 쓰는 거야  
④ 너는 무엇을 했니      ⑤ 공방이 어디에 있니

정답해설: A의 빈칸 질문에 대한 B의 대답과 이어지는 A의 발언으로 미루어 빈칸에는 다음 휴가의 계획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2.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너 이 광고 봤니? 셔츠 하나를 사면 하나가 공짜야.  
B : 아 그래? 값이 싸네!  
A : 네 말이 맞아. 가격이 저렴하네.

- ① 값이 비싸네      ② 그녀를 잘 돌봐줘      ③ 값이 싸네  
④ 나는 목이 말라 죽겠어      ⑤ 나 대신 그에게 편지를 써

정답해설: B의 빈칸에 이어 A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값이 저렴하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3. 대화 내용 이해하기

Hugo: 안녕 Paul! 애는 오랜 친구인 Jean이야.  
Paul: 반가워! \_\_\_\_\_ c, d \_\_\_\_\_.  
Jean: 나도. Hugo가 나에게 너에 대해 얘기 많이 했어.

- \_\_\_\_\_ <보기> \_\_\_\_\_
- a. 약속한거야 c. 너를 알게 되어 기뻐  
b. 할 일이 없어 d. 너를 만나게 되어 기뻐

**정답해설:** 대화 맥락상 빈칸에는 Hugo에게 친구를 소개받은 Paul이 Jean에게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보기>의 표현들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c와 d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 14.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봐,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잖아!  
B: 응. 곧 끊을게.

**정답해설:** 운전 중 전화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표지판은 ①번이다. **정답 ①**

#### 15.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Pizza Toscana입니다. 말씀하세요.  
B: 안녕하세요, 그곳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_\_\_\_\_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A: Voltaire가 7번지, 약국 옆이에요.

- ①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②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③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④ 당신의 전화번호가 무엇인가요  
⑤ 언제부터 요리를 구하고 계세요

**정답해설:** 빈칸 B의 질문에 A가 주소를 대담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주소를 묻는 표현인 ③번이다. **정답 ③**

#### 1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그래서, 너 수학 시험에 합격했니?  
B: 응, 쉽게. 나에게 그건 식은 죽 먹기였어.  
A: 맞아, 너는 늘 수학에 강하지. 축하해!

**정답해설:** "C'est du gâteau"는 우리말 표현의 '식은 죽 먹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매우 쉽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 17.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날씨가 정말 춥다.  
B: 일기예보는 어때?  
A: 오늘 영하 10도라고 했어. 두꺼운 스웨터를 입어!

- ① 우리 시간 있니 ② 그는 언제 ③ 일기예보는 어때  
④ 무슨 요일이야 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정답해설:** B의 빈칸 질문에 A가 기온을 대담하고 있으므로 선택지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③번밖에 없다. **정답 ③**

#### 18. 글의 내용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6월 5일, 저녁 8시에 당신의 식당에 자리를 하나 예약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12명입니다. 육류를 포함하지 않은 주 요리, 과일 디저트 그리고 5병의 좋은 와인으로 구성된 대략 50유로짜리 정식을 제안해주시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ude Rey

**정답해설:** 글에서 Aude Rey가 주문한 음식 중 포도주 5병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③번은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정답 ③**

#### 1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어머! 깜짝 놀랐어! 너 여기 사니?  
B: 아니, 이 동네에서 일하고 있어.  
A: 멋지다! \_\_\_\_\_ ①, ②, ③, ④ \_\_\_\_\_ ?  
B: 나는 기자야.

- ① 너의 직업이 뭐니 ② 너 어디에서 일하니 ③ 너의 직업이 뭐니  
④ 너는 무슨 일을 하니 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정답해설:** A의 빈칸 질문에 대한 대담으로 B가 자신의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⑤번은 빈칸에 적합하지 않다. **정답 ⑤**

#### 20.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마지막 지하철이 몇 시에 있어?  
B: 밤 12시 5분인 것 같아.  
A: 몇 시야?  
B: 곧 밤 12시야. 서두르자!

- ① 몇 시야                      ② 그렇게 보여                      ③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
- ④ 그는 결석이니              ⑤ 얼마야

**정답해설:** A의 빈칸 질문에 B가 곧 있으면 밤 12시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현재 시간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온라인으로 내 자전거를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나를 좀 도와줄래?  
B : 미안해, 나도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 ① 그는 내가 필요하니                      ② 그것은 누구 이름이니
- ③ 누구세요                                      ④ 네가 나를 좀 도와줄래
- ⑤ 너는 생각이 바뀌었니

**정답해설:** A의 빈칸 질문에 B가 사과를 하며 자신도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온라인 상거래 관련하여 A가 B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2~26] 문화**

**22. 생활 문화: 볼 인사(비즈, bise)**

미나: 길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볼에 인사하는 것을 봤어.  
떼오: 그래, 그것을 “비즈하기”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해.  
미나: 몇 번씩 하는 거야?  
떼오: 두 번이나 세 번 해. 파리에서는 흔히 두 번 하지.

- ① 비즈(bise)                      ② 꽃                                      ③ 건강
- ④ 색깔                                      ⑤ 놀람

**정답해설:** 대화문은 프랑스에서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볼을 맞대면서 하는 인사 방법인 ‘bise’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3. 음식 문화: 바게트(baguette)**

바게트는 밀가루, 물, 소금과 같은 간단한 것들로 만들지만, 모두 다른 맛을 냅니다. 프랑스인들이 빵을 점점 덜 소비하지만 그래도 바게트는 여전히 그들이 선호하는 빵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바게트를 사고 그들의 이웃들과 이야기할 기를 하기 위해 빵집으로 갑니다. 바게트는 프랑스식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바게트는 2022년에 UNESCO 무형 문화유산에 들어갔습니다.

**정답해설:** 제시문은 프랑스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바게트 빵에 관한 내용이다. 답지들 중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답지 ④ ‘바게트는 어느 빵집에서나 똑같은 맛을 유지한다.’이다.                      **정답 ④**

**24. 지리 문화: 생-피에르 에 미끌롱(Saint-Pierre et Miquelon)**

생-피에르 에 미끌롱(Saint-Pierre et Miquelon)은 북아메리카의 유일한 프랑스 영토이다. 이곳은 크고 작은 여러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부근에 위치한 이 일련의 섬들은 유럽연합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곳에서는 유로화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팔 수 있다.

**정답해설:** 제시문은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유일한 프랑스 영토인 생-피에르 에 미끌롱(Saint-Pierre et Miquelon)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b.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다.’와 d. ‘Amérique du Nord의 유일한 영토이다.’로 구성된 ④번이다.                      **정답 ④**

**25. 인물 문화: 장-마리 귀스타브 르 끌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ézio)**

장-마리 귀스타브 르 끌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ézio)는 1940년 니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작가이다. 그의 아버지는 나이지리아에서 의사였다. 르 끌레지오는 프랑스와 영국, 멕시코에서 공부를 했다. 2008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여행과 꿈 그리고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2018년에 *Bitna, sous le ciel de Séoul*을 출간하였다. 그는 제주도과 그 바람을 맞으며 떠 있는 낚시배들을 좋아한다고 자주 말했다.

- <보 기>
- a.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의사가 되었다.
  - b. 그는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했다.
  - c. 그는 노벨상을 받기 전에 한국에서 연구를 했다.
  - d. 그는 *Bitna, sous le ciel de Séoul* 책을 읽으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정답해설:** 제시문은 2008년에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고, 같은 해 10월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Le Clézio에 관한 것으로, 제시문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b, c 구성된 ③번이다.                      **정답 ③**

26. 생활문화: 띠페프(Titeuf)

A: 띠페프(Titeuf)가 30년이 됐어!  
 B: 띠페프가 뭐야?  
 A: 만화인데, 스위스 만화가인 Zep가 상상해 낸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거야. 이 어린 소년은 머리가 달걀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띠페프라고 불러.  
 B: 만화가 성공을 거두었어?  
 A: 그럼, 엄청나게 성공했지. 프랑스에서는 2004년 앙굴렘 만화 축제에서 Zep이 이것으로 상을 받았어. TV나 영화, 그리고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서도 띠페프를 만날 수 있어.

정답해설: 대화문은 스위스 만화가인 Zep에 의해 탄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만화인 '띠페프(Titeuf)'에 관한 것으로, 대화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② 주인공이 영화와 게임에서도 활용되었다.'이다. 정답 ②

[27~30] 문법

27. 중성대명사 'le'

여학생: 안녕, 엠마. 잘 지내지? 7월에 루이 그리고 나와 함께 리스본에 가는 거 어때? 가자, 너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빨리 답을 줘!

정답해설: 제시문의 빈칸에는 맥락상 'Tu ne vas pas regretter que tu vas à Lisbonne avec Louis et moi.'의 문장에서 밑줄 친 'que'절을 대신하는 중성대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프랑스어에서 'que'절을 대신하는 중성대명사는 주절의 동사가 명사 구문을 취할 때 어떤 구문을 취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문장에서 주절의 동사인 'regretter'는 명사를 취할 때 직접목적어를 취하므로(예. regretter le temps passé/sa jeunesse...), 이를 대신하는 중성대명사는 'le'이다(Viens, tu ne vas pas le regretter.). 정답 ③

28. 시간 표현

A: 내일 저녁 콘서트 표 두 장이 있어. 너 갈래?  
 B: 안 되겠어. 금요일마다/이번 금요일에, 강의가 있어.  
 A: 아쉽다.

<보 기>

- a. 금요일에 보자
- b. 금요일에(구문상 불가)
- c. 이번 금요일에
- d. 금요일마다

정답해설: 해당 문항은 시간 표현과 관련된 명사의 부사적 용법을 묻고 있다. 대화 맥락상 B의 빈칸에는 <보기>의 표현들 중에서 '금요일마다' 혹은 '이번 금요일에는'에 해당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금요일마다'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표현은 'Tous les vendredis', 'Chaque vendredi', 'Le vendredi' 등이고, '이번 금요일에'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표현은 'Ce vendredi', 혹은 'Vendredi prochain' 등이다. 참고로 <보기> a의 'À vendredi'는 '금요일에 보자'는 뜻으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c와 d로 구성된 ⑤번이다. 정답 ⑤

29. 비인칭 구문

- ① 우리에게는 약간의 우유가 남아 있다.
- ② 그녀는 용기가 부족하다.
- ③ 자리 갈 시간이다.
- ④ 많은 친구들이 도착할 것이다.
- ⑤ 지금은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해설: 해당 문항은 인칭 주어와 비인칭 주어의 차이를 묻고 있다. 답지 ①의 동사 'rester'는 해당 문장과 같이 '~에게 ...이 남아있다'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인칭 주어인 'il'이 사용된 'Il reste qc/qn à qn' 구문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인칭주어인 'Elle'이 사용되었으므로 오답이다. 답지 ②의 동사 'manquer'는 해당 문장과 같이 전치사 'de+무관사명사'의 형태로 '~이 부족하다'의 의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답지 ③은 문장의 의미상 'Il est l'heure de +inf' 혹은 'C'est l'heure de +inf'의 형태로 '~할 시간이다'를 표현해야 한다. 해당 답지에서는 인칭주어 'Elle'이 사용되었으므로 옳지 않은 표현이다. 답지 ④의 동사 'arriver'는 해당 문장과 같이 '~에게 ...이 도착하다, 발생하다.'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Il arrive (à qn/qc) + 명사'의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답지에서는 인칭 주어 'Elle'이 사용되었으므로 옳지 않은 표현이다. 답지 ⑤의 동사 'agir'는 해당 문장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이다'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Il s'agit de +inf'의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답지에서는 인칭 주어 'Elle'이 사용되었으므로 옳지 않은 표현이다. 정답 ②

30. 동사 구문

- a. 2013년에 나는 10살이었다.
- b. 나는 세계를 여행할 것이다.
- c. 나는 베르사이유 궁전을 구경한다.

